

성희승 개인전

《Eternal Becoming》



Crystal Structure, 2025, Acrylic on canvas, 162.2x130.3cm

전시제목 : 성희승 개인전 《Eternal Becoming》

전시기간 : 2026년 1월 7일(수) - 2026년 2월 7일(토)

전시장소 : 학교재 본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학교재 오름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회화 17 여 점

○ 담 당 이주연 juyeonlee@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60107-20260207_성희승, Eternal Becoming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6년 1월 7일(수)부터 2월 7일(토)까지 성희승(b. 1977) 개인전 《Eternal Becoming》을 연다. 회화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시간 구축해온 세계관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성희승은 회화를 하나의 완결된 결과물이 아닌 생성과 이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으로 인식하며, 반복된 행위와 축적된 시간이 화면 위에 남기는 흔적을 탐구해왔다. 특정한 대상을 재현하기보다, 바라보고 머물렀던 시간 속에서 형성된 감각의 층위를 시각적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둔다.

2. 전시 주제

《Eternal Becoming》은 형상이 도달하는 지점보다,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감각, 그리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생성의 과정을 응시한다. 성희승에게 회화는 '무엇을 그렸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머물렀는가'를 기록하는 행위에 가깝다. 화면은 대상의 재현이 아니다. 반복과 응시, 집중과 멈춤이 축적된 시간의 장으로 작동한다.

작가의 작업을 관통하는 개념은 '되어감(becoming)'이다. 존재는 고정된 상태가 아닌, 끊임없이 생성과 확장을 반복하며,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유는 초기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원'의 형상에서 출발한다. 원은 완결과 순환, 무한을 상징하는 근원적인 형태로, 반복을 통해 세계를 포괄하려는 시도의 결과였다. 이후 삼각형에 대한 탐구를 거치며 작업은 전환점을 맞는다. 삼각은 안정과 긴장, 생성과 붕괴를 동시에 품은 구조로 최소한의 형태 안에서 최대의 진동을 발생시키는 단위이다. 이 과정에서 원은 더 이상 종착점이 아니다. 떨림 속에서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하나의 국면으로 이동한다.

탐구의 연장선에서 등장한 '별'은 특정한 상징이나 서사를 지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원과 삼각, 완결과 확장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겹쳐지는 지점이며,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이동해온 흔적이다.

성희승의 회화에서 별은 잡을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빛이며, 소유할 수 없지만 관계를 맺고, 멀리 있지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존재로 나타난다. 별은 개인적인 체험과 기억, 존재의 균열 속에서 마주한 빛의 응축된 형상이다.

이번 전시에서 회화는 기도나 명상에 가까운 행위로 드러난다. 반복되는 붓질과 점의 축적은 즉흥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질서와 구조적 리듬이 작동한다. 통제와 우연, 자유와 규율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은 채 긴장 속에서 공존한다. 하나의 화면은 작가의 신체, 의식, 감각이 수렴된 장으로 형성된다. 화면은 언제나 '완성'이 아닌 '진행 중'의 시간으로 열려 있다. '별'이라는 형상을 통해 희망이나 위로를 전달하는 상징을 넘어, 생명성과 관계의 가능성을 사유한다.

완결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생성의 상태에 머무는 회화의 시간을 펼쳐 보이며, 관객에게 각자의 감각과 기억이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을 제안한다.

3. 작품 소개



Eternal Becoming

2025

Acrylic on canvas

257x283cm



Eternal Becoming

2002, 2023-2025

Acrylic on canvas

228x163cm



푸른별

2024

Acrylic on canvas

193.5x130cm

성희승의 회화는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에서부터 출발한다. 점, 짧은 붓질, 미세한 색의 차이는 하나의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형성하지 않는다. 반복과 중첩을 통해 서서히 화면의 밀도를 쌓아 올린다. 이 과정에서 화면은 하나의 중심으로 수렴하기보다 여러 방향으로 미묘하게 확산되며, 관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킨다.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번에 파악되지 않고, 바라보는 시간에 따라 다르게 열리는 구조를 지닌다.

작업은 즉흥적인 제스처로 시작되지만, 화면에는 일관된 규칙과 질서가 유지된다. 반복되는 패턴은 감각에 맡겨진 듯 보이나, 각 점과 붓질은 화면 전체의 균형과 호흡을 고려하며 배치된다. 그의 회화에서 우연은 구조 안에서 허용된 변주로 작동한다. 그 결과 화면에는 자유로움과 긴장, 유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공존한다.

하나의 작품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작가는 화면 앞에서 반복적으로 멈추고 다시 시작하며, 이전의 흔적 위에 새로운 층을 덧입힌다. 이때 시간은 중단과 재개의 리듬 속에서 축적된다. 물감은 얇게 겹쳐지거나 부분적으로 흡수되며 표면에는 미세한 깊이와 질감의 차이가 형성된다.

색채는 화면에서 서로 간섭하며 공존한다. 최근 작업에서 사용되는 아이보리, 미색, 회색, 파스텔 톤은 단일한 인상을 전달하기보다, 미묘한 온도와 밝기의 차이를 통해 화면의 리듬을 조율한다. 명확한 대비보다는 스며듦과 중첩을 통해 작동하며 보는 위치와 거리, 조명에 따라 다른 표정을 만들어낸다.

작품을 마주하는 경험 역시 하나의 과정으로 설계된다. 멀리서 바라볼 때 화면은 구조와 흐름, 전체적인 리듬이 먼저 감각되며, 가까이 다가갈수록 붓질의 떨림과 손의 움직임, 시간의 축적이 드러난다. 붓이 닿지 않은 화면의 여백 또한 하나의 요소로 작동하며, 시선이 머무는 공간을 형성한다.

우리는 화면 앞에서 자연스럽게 거리와 속도를 조절하며 자신의 호흡과 시선을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성희승의 회화는 해석을 요구하기보다, 관객이 머무는 시간과 시선의 이동에 반응하며 서서히 열리는 구조를 지닌다. 이미지 이전의 물질성과 행위, 그리고 관람이라는 행위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감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로 작동한다.

4. 작가 소개

성희승(b. 1977)은 부산 출생으로 현재 서울, 런던, 뉴욕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5년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스튜디오아트, 미디어아트 석사를 졸업하고, 2015년 영국 골드스미스 런던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21년에는 국민대학교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Eternal Becoming》(2026, 학교재, 서울), 《별을 새기다》(2025, 영은미술관, 광주), 《퍼포먼스에서 스타더스트까지: 성희승의 아트라이프》(2023, 자하미술관, 서울), 《우주_()IV》(2021, 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 서울), 《우주_()III》(2021, 경기아트센터, 수원), 《우주_()》(2021, 학교재 아트센터, 서울) 등의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A4액션 2025: 빛의 혁명》(2025, 국회 의원회관, 서울), 《시천여민》(2024, 광주시립미술관, 서울), 《올해의 작가》(2022, 사치아트, 런던, 영국), 《예술가의 삶》(2021, 갤러리 G, 히로시마, 일본), 《미술로 보는 세상》(2019, 강남구청, 서울), 《The Rule of Art》(2009, 주중한국문화원, 베이징, 중국), 《View from Other Side》(2008, 주미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But I Was Only Acting》(2006,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마드리드, 스페인), 《초대받은 / 초대받지 않은》(2003,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 이탈리아) 등이 있다. 또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경기아트센터, 영은미술관, 자하미술관, 삼성문화재단, 연세대학교, 도이치뱅크 등 다수에 작품이 소장 되어 있다.

5. 작가 약력

1977 부산 출생

현재 서울, 런던, 뉴욕에서 거주 및 작업

학력

2021 국민대학교 미술학 박사 졸업

2015 골드스미스 런던대학교 박사 수료

2005 뉴욕대학교 스튜디오아트, 미디어아트 석사 졸업

2003 홍익대학교 회화과 석사 졸업

2001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 졸업

주요 개인전

2026 **Eternal Becoming**, 학교재, 서울

2025 별을 새기다, 영은미술관, 광주

2024 별 작가, 히스토리, 한국등잔박물관, 용인

2023 퍼포먼스에서 스타더스트까지: 성희승의 아트라이프, 자하미술관, 서울

2022 우주숲, 솔트스톤갤러리, 제주

2021 우주_()IV, 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 서울

우주_()III, 경기아트센터, 수원

- 우주_()II, 와우갤러리, 서울
 우주_(), 학교재 아트센터, 서울
 2020 동쪽에서 온 빛, 시카미술관, 김포
 2019 보이는 것 / 보이지 않는 것, 갤러리 도스, 서울
 별을 그리다, 최인아책방, 서울
 빛으로, 갤러리위, 서울
 2018 모닝스타, 스타갤러리, 서울
 2017 비가시의 가시화, 모즈갤러리, 서울
 2014 향유를 붓다, 큐비갤러리, 런던, 영국
 2013 향유를 붓다, 즈스위 갤러리, 서울
 2012 올랭피아, 더 엔톨로지스트, 런던, 영국
 2011 올랭피아, 큐비갤러리, 런던, 영국
 2010 욕망의 스펙트럼,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
 2009 비디오테이디, 김영섭사진화랑, 서울
 2006 스튜디오 628, 덤보아트페스티벌, 뉴욕, 미국
 2005 연인바이트드, 50 워싱턴 이스트 갤러리, 뉴욕, 미국
 2003 습기, 토탈미술관 장흥아트파크, 장흥

주요 단체전

- 2025 세계예술인 한반도 평화대회, 헤이리예술마을, 파주
 경계를 넘어 예술로, 갤러리필랩, 용인
 A4엑션 2025 - 빛의 혁명, 내가 그리는 민주주의, 국회 의원회관, 서울
 비욘드 더 피플, 마루아트센터, 서울
 2024 작가의 별, 갤러리내일, 서울
 시천여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사운드 퍼포먼스, 모하비사막, 미국
 2023 바디 퍼포먼스, 고비사막, 몽골
 2022 아트쇼핑, 루브르 미술관, 파리, 프랑스
 아티스트 라이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파리, 프랑스
 올해의 작가, 사치 아트, 런던, 영국
 2021 예술가의 삶, 갤러리 G, 히로시마, 일본

 2019 미술로 보는 세상, 강남구청, 서울
 4482 런던 한인전, 셀로아트, 서울
 2011 오픈 큐비, 큐비갤러리, 런던, 영국
 2010 살롱 썸머, 살롱 컨템포러리, 런던, 영국
 2009 레스 이즈 모어, 플러스 갤러리, 나고야, 일본

- 더 룰 오브 아트, 주중한국문화원, 베이징, 중국
2008 뷰 프롬 아더 사이드, 주미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2007 코리아 나우, 허친스 갤러리, 뉴욕, 미국
2006 벳 아이 워즈 온리 인 액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마드리드, 스페인
NYU/ICP 20년, 국제사진센터, 뉴욕, 미국
2005 우먼 인 러브, 테리문화연구소, 뉴욕, 미국
식스 팩, 베이징 필름 아카데미, 베이징, 중국
나우 앤 퓨처, 캔터 필름 센터, 뉴욕, 미국
2004 이트아트, 아와아 갤러리, 뉴욕, 미국
2003 초대받은 / 초대받지 않은,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 이탈리아

레지던시

- 2025 가나 아틀리에, 장흥
영은창작스튜디오, 경기
2019 아이옥션 곤지암 학산도요지, 경기
2017 조선일보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서울
2013 포스레지던시, 베이징, 중국
2010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
2008 덤보 스튜디오, 뉴욕, 미국
2006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버몬트, 미국
2005 베이징 필름 아카데미, 베이징, 중국

수상

- 2022 올해의 작가상, 사치아트, 영국
2018 스타미술상, 스타갤러리
한국을 빛낸 예술가, 서울매일
2005 8 이머징 아티스트, 미국
2004 버몬트 2004-2005 어터네이트 프리맨 펠로우, 미국

소장

- 레이나소피아미술관, 마드리드, 스페인
경기아트센터, 수원
영은미술관, 광주
자하미술관, 서울
삼성문화재단, 서울
연세대학교, 서울
도이치은행, 런던, 영국

출판

- 2023 『별 작가, 희스토리』, 학민사
2021 『별; 오름에서 편지를 띄우며』, 지베르니
2019 『성희승, 별을 그리다』, 엘컴퍼니

6.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재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시간에 스치는 방식 - Eternal Becoming

이주연 | 학교재 기획팀장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별은 배경이나 설정이 아니다. 관계가 발생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다. 어린 왕자가 살던 소행성 B-612는 세계라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작지만, 그 안에는 장미 한 송이와 두 개의 화산, 그리고 반복되는 돌봄의 시간이 놓여 있다. 별은 거대한 우주의 일부가 아닌, 한 존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세계의 크기로 제시된다. 세계는 물리적으로 확장될 수 있어도 관계가 성립하는 장소는 언제나 제한적이다. 시각적으로 별은 형태를 갖지 않은 점에 가까운 형상이다. 여기서 '별'은 관찰되는 대상이기보다 기억과 감정, 관계가 겹쳐지는 좌표로 기능한다. 어린 왕자에게 별은 장미가 있는 장소이며, 장미를 돌본 시간이 응축된 공간이다. 중요한 것은 별 그 자체보다도 그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 하는 문제다. 수많은 별과 장미 가운데 단 하나만이 '자기 것'이 되는 이유 역시 그 안에 들인 시간과 책임 때문이다.

이 구조는 어린 왕자가 지구에 도착하면서 더욱 분명해진다. 들판에서 마주한 수천 송이의 장미는 그가 유일하다고 믿었던 장미의 의미를 흔든다. 어린 왕자의 세계는 갑자기 확장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이후 여우와의 만남을 통해 관계는 비로소 형성된다. 여우는 낯선 사람과 즉각적인 친밀함을 나누길 거부하며, 어린 왕자에게 관계는 같은 시간에 만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반복 속에서만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만남이 반복되면서 수많은 장소 중 하나였던 들판은 머문 시간과 축적된 감각을 통해 점차 특정한 자리로 변한다. 더 이상 익명의 공간이 아닌, 관계가 깃든 장소가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다. 반복과 응시가 만들어내는 밀도다. 이후 어린 왕자는 유일성은 대상의 희소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귀속된 돌봄과 책임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야기의 끝에서 어린 왕자가 사라진 뒤, 별은 더 이상 물리적 거주지가 아닌 부채를 건디게 하는 이미지로 남는다. 밤하늘의 별은 웃음소리를 품은 기억으로 변하며, 관계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흔적이 된다.

이러한 사유는 성희승의 회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의 화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과 빛, 겹겹이 쌓인 색의 흔적들은 별이나 우주를 연상시키지만, 그것은 재현의 결과이기보다 감각이 남긴 인상에 가깝다. 성희승의 회화는 특정한 공간을 묘사하기 위한 이미지가 아니다. 오히려 바라보고 머물렀던 시간들이 화면 위에 남긴 흔적이다. 《Eternal Becoming》은 아직 끝에 도달하지 못한 언어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하나의 형상이 완결되는 순간이 아니라, 형상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이동하는 시간에 주목한다.

초기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원'은 가장 근원적인 완결의 형태였다. 순환과 반복, 무한을 내포한 조형 언어로서의 원은 퍼포먼스, 사진, 영상 작업과 결합되며 신체성과 개념을 동시에 포괄해왔다. 그러나 삼각형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를 거치며 작업은 전환점을 맞는다. 삼각은 안정과 긴장, 생성과 붕괴를 동시에 품은 구조이자, 최소한의 형태로 최대의 진동을 발생시키는 단위다. 원은 더 이상 종착점이 아닌, 떨림 속에서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하나의 국면이 된다.

'별'은 이 과정의 결과다. 원과 삼각, 완결과 확장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겹쳐지는 지점. 형식의 변화라기보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이동한 흔적에 가깝다. 그의 회화에서 별은 특정한 상징이나 서사를 지시하지 않는다. 사랑과 희망, 위로를 포함하면서도 존재의 회복에 관한 질문으로 작동한다. 개인적인 삶의 균열 속에서 마주한 밤하늘의 별빛은 '상징'이 아니라 '기억'이 되었다. 이때 별은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빛이다. 소유할 수 없지만 관계를 맺고, 멀리 있지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존재인 것이다. 작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를 추상으로 구현하며, 이를 '하이퍼-추상'¹이라 부른다.

이는 화면을 구성하는 물질적 조건 속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그의 회화는 하나의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점과 짧은 붓질, 미세한 색의 차이들은 반복과 중첩을 통해 서서히 화면의 밀도를 형성하며, 중심을 향해 수렴하기보다 여러 방향으로 미묘하게 확산된다. 화면은 단번에 파악되지 않고, 바라보는 시간에 따라 다른 층위를 드러내는 구조를 지닌다. 작업은 즉흥적인 제스처로 시작되지만, 화면에는 일정한 조형 질서와 리듬이 유지된다. 반복되는 패턴은 감각에 맡겨진 듯 보이나, 각 점과 붓질은 화면 전체의 균형과 호흡을 고려하며 배치된다. 우연은 구조 안에서 허용된 변주로 작동하며 자유로움과 긴장, 유기성과 안정성은 화면 안에서 공존한다. 반복적으로 멈추고 다시 시작되며, 이전의 흔적 위에 새로운 층을 덧입힌다.

최근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절제된 색채 역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강렬하고 직접적인 색에서 아이보리, 미색, 회색, 파스텔 톤으로의 이동은 에너지의 소멸이 아니라, 더 깊은 층위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색은 감정이자 시간이며, 에너지의 밀도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색의 차이를 인식하는 감각은 작업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화면 속 별들은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집합적이다. 각각은 고유한 진동과 리듬을 가지지만, 화면 안에서는 하나의 장(field)을 형성한다. 전체는 개별을 통해 드러나고, 개별은 전체 속에서 더 또렷해진다. 이 둘은 대립하지 않고 상호 침투하며 하나의 호흡을 이룬다.

멀리서 작품을 마주할 때 관객은 하나의 화면이 아니라 빛의 장 속에 서게 된다. 구조와 흐름, 우주적 리듬이 먼저 감각되지만, 이를 정확히 파악하려 할수록 오히려 흐릿해지는 지점들이 생긴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러하듯, 무수한 점들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존재하지만, 전체를 붙잡으려는 시선 앞에서는 쉽게 포획되지 않는다. 가까이 다가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열린다. 붓질이 닿지 않은 화면의 여백마저도 빛으로 작동한다. 커켜이 쌓인 흔적들은 감각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확장의 밀도를 만들어낸다.

¹ 한글로 표현하면 극추상, 영어로 표현하면 Hyper-abstract에 가깝지만, 성희승은 자신의 작업을 '하이퍼-추상(hyper-chusang)'이라 명명했다. 이는 '추상'이라는 한글과 한문의 개념을 알리며, 동양적 시각과 한국의 시각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별을 보기 위해 우리는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자리의 빛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듯, 관객 역시 스스로의 감각을 낮출 때 비로소 화면은 빛의 일부를 허락한다. 장막 너머의 별이 광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의 눈동자에 닿듯, 화면 속 빛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흔적이다. 어쩌면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를 그 빛 앞에서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성희승의 화면은 정답을 제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질문이 열리는 장이다. 무엇을 보았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를 묻는다.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그 사이의 거리에서 각자의 호흡이 조용히 바뀌는 순간이 도래하기를 기다린다.